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2019~2023)

2019.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제1장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개요 1. 추진 배경
제2장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제2차 계획의 성과 5 2. 제2차 계획의 한계8
제3장	도서관 환경변화와 대응 1. 사회문화적 환경
제4장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1.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15 2.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16
제5장	제3차 종합계획의 정책과제 1.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개요

│. 추진 배경

1. 급변하는 사회·문화·정치·경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적 적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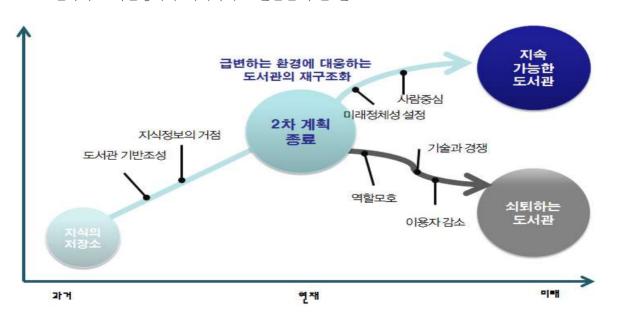
- 기술에 의한 인간소외,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쇠퇴,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 경제·일자리의 양극화 등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인식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점
- 인간의 인식역량은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습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을 통해 형성
- 정보 소통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여 정보와 사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사회적 통합의 기틀 마련

2.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서관 모색

- 기술 발달에 따라 그간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지적재산 관리, 데이터 관리의 영역은 기술에 의해 대체될 위기
- 정보매체의 다양화,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로 인해 인쇄매체 중심의 도서관으로는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에 직면
- 기술활용(technology application)과 기술방수(technology proof)의 서비스영역을 구분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 편의성 확대와 동시에 인간 고유의 창조적 감수성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 필요

3.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 법정 국가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2018년도에 종료되므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서관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 필요



Ⅱ. 계획의 목적

향후 5년간 도서관이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 활동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개인, 공동체, 사회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체계 구축

1. 도서관활동의 정책적 비전과 목표 제시

- 지방분권, 포용국가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분권 시대와 포용국가 시대의 도서관의 정책적 대응 방안 검토 및 미래방향 설정
- 경제적 양극화, 4차 산업 혁명 등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도서관, 도서관인력 역할의 재설정
- 지역의 쇠퇴, 인구구조의 변화, 욕구의 다양화 등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선도적 문화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다변화 모색

2. 도서관발전을 위한 중장기(2019~2023) 정책과제 및 사업 제시

- (포괄성) 관종별 도서관, 도서관 정보생태계 각 분야를 포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
- (체계성) 정책방향, 정책과제, 정책지표, 자원투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
- (실효성)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과제 추진 로드맵 구성

Ⅲ. 계획의 성격 및 실행절차

1. 계획의 성격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 계획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법률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나, 법에 준하는 제도적·규범적 효력을 담보하므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원계획 등의 준거가 되는 계획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모든 관종을 아우르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계획으로서 도서관 분야의 최상위계획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19~2023년(5년마다 수립·시행)
- 내용적 범위: 도서관법 제14조에 제시한 기본사항 포함

3. 실행절차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도서관법 제14조)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5년마다 수립·시행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통보(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시행계획 수립지침 심의·확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도서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제3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정책과제별로 종합·정리, 수립한 시행계획을 11월 30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확정 후 12월 31일 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
- 재워의 조달(제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하고,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 가능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실행절차

구분	행위주체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침마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선 전도를 사용계속 구립시점복성	심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4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A 어디버 시체계히 사이 하지 토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종합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
6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확정, 통보	확정 →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통보
⑥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Ⅳ. 종합계획 수립 경과

1.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실시('18.4~11월)

- 제2차 종합계획 성과분석, 도서관 대내외 환경분석 및 대응 방향,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정책과제 및 사업 발굴 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종별 도서관 전문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회의

2.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도서관정책포럼('18.6~8월)

- (분야) 서비스, 정보불평등, 거버넌스, 인력 분과
- (인력구성) 도서관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1명
- (활동)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정책과제 및 사업 발굴·검토

3. 대국민, 도서관계 의견수렴('18.6~8월)

-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기타 자유주제 의견
- 국민의견 35건('18.6.1.~6.29.), 도서관계 의견 175건('18.7.23.~8.24.)

4. 도서관대회 설명회('18.10.25.)

- 전국도서관대회('18.10.25.): 강원도 정선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정책방향 공유

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워크숍('18.11.29.~11.30.)

- (참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진, 도서관정책포럼 분과장, 도정위원 등 21명
- (내용) 종합계획 초안보고, 비전빌딩 및 정책방향 의견조율
- 6. 제3차 종합계획(안) 관련부처 및 의견수렴('18.12.7.~12.17.)
- 7. 제3차 종합계획(안) 대국민 공청회('18.12.12.)
- 8. 제3차 종합계획 심의·확정('19.1.4.)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 제2차 계획의 성과

1. 도서관 시설 및 장서의 지속적 확충

- 공공도서관의 증가로 도서관 접근성 향상
 - '17년 공공도서관 1,042개관으로 1관당 봉사대상 인구 수 4.9만명 달성
 - 학교도서관 설치율 증가('13년 97.5% → 98.3%)

	구분	2013	2017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수(개)	865	1,042
०० म्यार	1관당 봉사대상인구 수(명)	59,123	49,692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수	11,143	11,644
역 포 도 시 단	도서관 설치율	97.5%	98.3%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수	458	461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학술정보통계시스템(www.rinfo.kr)

- 국민 1인당 장서 수 향상
 -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2.03권으로 IFLA/UNESCO 최저기준(2~3권) 달성

	구분	2013	2017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장서량(권)	97,075	100,734
00110	국민 1인당 장서 수(권)	1.64	2.03
하고드시키	1관당 평균 장서량(권)	13,242	15,877
학교도서관	학생 1인당 장서 수(권)	22	30.5
 대학도서관	1관당 평균 장서량(권)	314,089	348,369
네딱포시선	학생 1인당 장서 수(권)	53	65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학술정보통계시스템(www.rinfo.kr)

2. 대체자료 제작, 다문화서비스 확대로 정보서비스 포용성 확대

- 공공도서관 장애인 자료실(혼합형 포함) 146개관 설치 및 장애인 도서자료 수 연평균 8.2% 증가
-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는 연평균 16.9% 증가

<공공도서관 장애인용 인쇄자료 수 및 이용자 수>

(단위: 권, %)

 구분	구분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연평균
। स	2013년	2014년	증감률	2010년	증감률	20101	증감률	2017 전	증감률	증가율
자료 수	319,323	264,598	-17.1	300,491	13.6	421,391	40.2	437,607	3.8	8.2
이용자	511,711	624,989	22.1	523,339	-16.3	925,655	76.9	956,810	3.4	16.9

○ 공공도서관 다문화자료실(혼합형 포함) 176개관 설치 및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17년 2,310개)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독서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공공도서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확대('17년 53,519개 운영)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생활밀착형 지식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확대('17년 556개관 참여)
- '길 위의 인문학' 활성화('17년 403개관, 5,030회, 138,519명 참가)
-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확대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

<도서관·독서 관련 프로그램 강좌 수 및 참가자>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연평균
ी च	2013년	2014년	증감률	2015년	증감률	2010년	증감률	2017 년	증감률	증가율
강좌 수	22,280	24,134	8.3	28,526	18.2	24,198	-15.2	24,580	1.6	2.5
참가자	4,892,620	5,272,046	7.8	4,621,048	-12.3	4,962,915	7.4	5,820,133	17.3	4.4

4. 도서관 협력체계, 정보의 연계·공유 활성화 기반 구축

- 기관별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정보자원 150만 건 아카이빙 및 유통
- 공유저작물 통합관리 추진 및 공유저작물 서비스 확대(고서 108,219책, 고신문 4.533.979건)
-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총 1,199개관 참여로 이용자 편의성 증진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제공건수>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률	2015년	증감률	2016년	증감률	2017년	증감률	연평균 증가율
제공건수	1,394,923	1,828,822		2,089,009		2,747,218		3,041,140	10.7	21.5

5. 국립도서관의 역할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기반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자료 납본근거 마련 및 디지털자료 확충
 - 2016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의 납본부수를 2부에서 3부로 확대, 디지털 파일 납본을 통해 공공간행물 수집 등
- (국회도서관) 고품질 의회정보서비스 제공(의회정보회답 3,548건, 팩트북 7회 발간, 외국법률번역DB 811건, 법률쟁점DB 653건, 맞춤형 법률정보회답 1,814건)
- (법원도서관) 법률정보 원문DB 250,082건 구축 및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및 종합법률정보 이용 활성화 (15.1백만 건)

6. 교육·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강화로 향상된 학습환경 제공

- 교과연계수업 강화 및 정보활용교육 확대(학교별 학기당 평균 5개 교과, 평균 98시간)
- dCollection*(Digital Collection,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창의적 연구환경 제공
 - *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등 대학 생산 학술자원의 수집, 유통 및 공동활용
- 학술정보자원 접근성 및 공유 강화('17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일평균 이용 68천건)
- 공공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전자원문정보 서비스 624만 회 제공
 - 농업과학기술정보DB 6,599건('17년) 구축 및 북세미나 등 농업과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12회, 맞춤형 연구지원정보 587건 제공
 - 국내 의과학 학술지 수집력 75%→80%로 강화 및 서지DB 6.1만건 구축('17년) 등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 내실화('17년, 3,080백만원)
 - 정책정보종합목록DB 총 65만건('17년), 정책정보원 20,000건, 정부 및 공공간행물온라인서비스 (Gzone.kr) 제공

7. 도서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발의(도종환 의원, '17.2.7.) * 교문위 상정('17.9.19.)
 - 국가·지방자치단체·도서관의 책무 강화, 도서관등록제도, 도서관의 날('17년 4.12.) 지정 등
-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 관련 설문조사('18.1~3월) 및 결과공유 토론회(5월)
-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용역('18.7~12월)
 - 도서관등록요건(사서·도서관자료·시설), 등록심의의 방법 및 절차, 사서배치기준 개정, 도서관 시설·도서관 자료의 기준과 운영기준 신설 등
-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시행('15년)
-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16년)
 -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공표 의무화
-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18년)

□. 제2차 계획의 한계

1. 도서관 이용자수와 대출의 감소

- 1관당 이용자 수 및 도서 대출의 감소 지속
 - 학교도서관의 1관당 대출도서 수가 미세하게 오른 것을 제외하고, 도서관 전반적으로 방문자 수, 대출도서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	및	대출도서	수>
--	------	-----	-----	---	---	------	----

구분	1관당 방문자 수 및 대출도서 수	2013	2017
공공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명)	331,813	261,103
0 0 工 기 包	1관당 대출도서 수(건)	151,313	121,528
학교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명)	6,416	6,089
의 프 그 기 선	1관당 대출도서 수(건)	11,340	11,410
 대학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명)	373,952	319,690
네워도시한	1관당 대출도서 수(건)	45,759	37,602

2. 도서관·도서 관련 서비스 집중으로 문화서비스 약화

-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 강좌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공급 현황 및 참여자 수>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률	2015년	증감률	2016년	증감률	2017년	증감률	연평균 증가율
1관당 문화프로그램	31	28	-9.7	30	7.1	32	6.7	27	-15.6	-3.4
 1관당 참여자	6,404	6,085	-5.0	5,006	-17.7	4,934	-1.4	5,072	2.8	-5.7

3.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서비스 확장 미흡

- 일자리 문제가 청년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도서관이 역량 증진을 위한 학습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창업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미흡
- 대학도서관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등에서 수요자의 관심 주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제서비스 여전히 미흡

4. 원격 정보접근, 도서관 빅데이터 이용의 정체 지속

- 대학의 여건에 따라 학술정보에 대한 관내 접근뿐 아니라 관외 원격 접근의 불평등 지속
- 저작권법, 출판계와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원격이용과 정보자원의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하지 못함

5. 지역도서관의 자율적 서비스 기반 마련 미흡

- 13개 지역에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정·설립 되었지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 및 역량을 갖추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법정 업무가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차별성 부족
- 지역자료의 보존, 도서관 공간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추진 미흡('17년 현재 5개 지역 설치)
 - 공동보존서고 운영 가이드라인, 전담부서, 전담인력 부족
- 지역의 향토자료 등 공동체 자료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지역의 기억이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6. 정보서비스의 사각지대 지속

- 장애인 도서관의 지역 불균형(42개관 중 서울 16개관, 경기도 5개관) 지속과 다양한 장애환경에 대한 맞춤형 접근 미흡
- 교도소 도서관은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전담인력이 1명도 없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빈곤 등 삶의 문제와 씨름하는 계층은 아예 도서관 이용욕구조차 인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7. 도서관 서비스 인력의 충원 및 역량강화 미흡

- 장서 수, 관종별 도서관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의 핵심인 인력의 충원, 역량 강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음. 인력의 충원도 주로 비정규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좋은 일자리에 기반한 좋은 서비스 여건 미흡
-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 등은 운영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

<관종별 1관당 사서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도서관(명)	4.2	4.1	4.2	4.2	4.3
대학도서관(명)	6.1	6.0	5.8	5.6	5.7
학교도서관(명)	0.39	0.43	0.45	0.49	0.50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 환경변화와 대응

│. 사회문화적 환경

1. 인구환경의 변화

-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 오너스의 시대
 -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18년)에 진입했으며, 향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65세 이상의 고령인구:
 '17년 13.8% → '60년 41%)(통계청, 2018)
 - 저출산('18년 합계 출산율 0.96~0.99)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늘어나는 고령인구 부양 능력을 감소시켜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다문화 사회
 -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년 186만 명으로 총인구의 3.6%에 달해 전라남도 인구와 비슷한 규모('17년 전라남도 인구 182만 명)(행정안전부, 2017)

2. 지역·사회환경의 변화

- 지역 불균형의 가속화, 지역의 쇠퇴 및 소멸
 - 경제, 교육, 교통, 주거, 문화 전반에 걸쳐 지역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 쇠퇴와 소멸이 진행 중
 - 전국 228개 중 89개(39%)가 소멸할 위험해 처해 있고, 소멸위험 읍면동에서의 27만 2천명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고용정보원, 2018)
- 급격한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 사회적 갈등 증폭
 -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 지표 중 공동체(사회적 지원관계망, Perceived Social Network Support) 지표에서 38개국 중 37위(OECD, 2016)
 - 압축 성장에 따른 문화적 급변, 정치적 견해 차이, 일자리와 빈곤의 문제들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14년 56.2%→'16년 6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3. 경제환경의 변화

- 저성장 시대, 노동시간 단축
 - 고도성장기의 핵심 산업이었던 노동시간 의존형 산업의 정체, 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인해 3% 내외에 저성장 지속('19년 2.7%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 노동시간이 생산성을 담보하지 않는 상황의 지속, 과로사회 종식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근무 상한제 실시(주 52시간, '18.7.1.)로 향후 여가시간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 산업·경제·노동 체질변환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고용율 66.7%, 실업률 3.5%, 비정규직 비중 33%, 청와대 일자리 게시판)
 - '18년 1분기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
 - * 상위·하위 20%의 소득격차
 -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률은 OECD에서 최고수준 (45.7%)

4. 기술환경의 변화

- 초지능화, 초연결성 기반의 4차 산업혁명
 - '초지능화', '초연결성'의 고도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경험을 대폭 확장할 것으로 예측됨
 - 사물의 지능화를 통한 인간이 배제된 사물끼리의 소통(IoT), 빅데이터(Big data)와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합리적 지능(AI), 새로운 시공간으로 경험(VR, AR)
-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교육
 -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일자리-교육'의 삼각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 포럼 보고서(2016)에서는 현재 일자리 중 710만개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
 - 동 보고서에서 노동력 전략을 위한 우선과제로 현 직원 재교육 투자(65%)를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기존 노동력의 재교육, 평생교육에 주목
- 4차 산업혁명,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정보, 윤리, 인간 소외의 심화 문제 등의 이슈가 등장하고 있음
 -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 기술의 윤리성과 책임의 문제, 인간의 참여와 소외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영역

Ⅱ. 도서관 서비스 환경

1. 도서관 수요환경

- 독서의 감소. 선호 매체의 변화
 - 성인의 독서율이 4년 사이에 12%P 하락('13년 71.4% →'17년 59.9%)하였고, 서적구입비도 지속적으로 하락('10년 25,921원→'16년 15,234원)

- 전자책 유통('16년 전년대비 37% 증가)과 전자책 출판('16년 전년대비 17.8% 증가)은 증가하고 있고,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이용현황을 보여주는 '재학생 1인당 상용 데이터베이스(DB) 이용 건수'는 '13년 94.5건에서 '17년 261건으로 대폭 증가
- 모바일 원주민('95년~'05년 출생자 640만 명)인 20대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텍스트 이용량은 29.6%로 나타났고, 완독 비율은 42.4%(내일20대연구소, 2015)
- 글로벌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정보제공자(구글, 아마존 등)와 경쟁심화 가속화
- 여전히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 선호매체의 변화 등 이용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물리적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인쇄매체를 선호하는 사람들, 다양한 서비스 기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방문 하는 공간으로 남아있음
 - 생활권 중심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와 맞물려, 문화기반시설 중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률이 여전히 가장 높은 곳은 도서관('16년 16.1%, 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 이용자의 변화, 욕구의 다양화
 - 사회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서관이 서비스해야 할 대상의 변화가 동반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의 도서관 이용이 급증
 - 문화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다양한 문화 장르를 넘나들며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향유의 옴니보어 (Omnivore·잡식성) 성향이 확대되고 있음('17년 평균 17.2개 여가활동 참여, 국민여가활동조사 2017)
 - 문화소비에 있어 장르의 경계가 무너짐과 동시에 기능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몰링형을 선호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사회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영역 간 중복 욕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 33.3%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서비스 영역 중 문화서비스 중복 욕구가 가장 높음

2. 도서관 공급환경

- 정보매체 간의 경쟁 심화
 -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다양한 미디어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전달매체로서 인쇄매체의 경쟁력 다소 약화
- 도서관 생태계와의 협력 난항
 - 출판계, 서점계 등 콘텐츠 제공자들과의 긴장관계 지속으로 인해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에 한계 노출
- 도서관 역할에 대한 도전
 - 도서관의 역할인 인쇄매체의 보존 활용만을 고수하면 기술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으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충분히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개발 요구 증대
 -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대응하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도서관 인력 문제의 벽에 막힘

Ⅲ. 도서관 SWOT 분석

1. 국가가 직면한 현안진단

○ 삶, 공동체, 지역의 균열 극복을 위해 도서관이 축적한 지혜(거인의 어깨)를 적극적으로 나눌 필요

구분	쟁점	진단
경제환경	- 일자리, 고용창출, 경제적 양극화 확대, 저성장 지속의 위기	7141 744
인구환경	- 인구 오너스의 시대 진입, 다문화 사회로 이행	삶의 균열
사회환경	-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심화, 세대 간의 갈등 다양화	공동체·지역의 붕괴
기술환경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의 소외, 노동력 대체	사회적 불균형
지역환경	- 인구 감소와 지역쇠퇴와 소멸의 위기, 지역 간의 역량/기반 불균형	1-11-22-0

2. 도서관 SWOT 분석

○ 도서관의 능동적 사회개입을 위해 약점을 극복하고, 기회와 강점을 활용하여 위기에 대처할 필요성 증가

강점	약점		
 문화서비스 리더 접근성 탁월 신뢰도 높음 콘텐츠(데이터)의 보고 상대적으로 역량자원 우위 	 ● 인력/조직/예산 부족 ● 정보자원 공유의 여건 미흡 ● 관행적(전통적) 도서관 정체성에 익숙 ● 도서관서비스 품질 편차 ● 딱딱한 분위기, 올드한 공간, 기능적 폐쇄성 ● 국가도서관체계 미흡 ● 위기감 과다(역할, 정체성 혼란) 		
기회	위기		
• 여가시간의 증대(주 52시간제)	■ 기술에 의한 노동대체 위기		
■ 생활문화의 중요성 증대(생활 SOC 등)	■ 서비스 다변화에 대한 요구 확대		
■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	■ 저작권법과 공공서비스의 충돌 가능성 증가		
■ 진짜 정보에 대한 욕구 증가	■ 책 매체의 선호도 감소		
■ 데이터 경제의 부상	■ 평생학습관과 역할 갈등		
■ 평생교육의 중요성 증가	■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장		
■ 미래 인간의 능력에 대한 요구 증가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압박		

Ⅳ. 국외 도서관계 동향

1. 도전과제와 국제사회의 대응

○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삶, 공동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대응방향을 설정하여 노력 중

도전 과제	쟁점	대응 방향
기술환경	- 4차 산업혁명 - 포스트휴먼시대	- 기술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 강화 -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논의 강화
지역환경	- 지역의 소멸, 쇠퇴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도시조성지역의 역량축적 강화
사회환경	사회적 불평등 및 배제 심화저출산고령사회, 인구절벽	- 사회적 포용성의 강화

2. 도전과제와 국제 도서관계의 대응

- 정보매체의 다양화로 인쇄매체 중심, 관리중심의 서비스 한계에 부딪혀 **능동적으로 서비스 다양화 모색**
- 도서관의 기능적 역할을 극복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로 방향**을 재설정
- 기술을 활용한 정보자원 전달과 활용의 극대화 모색

도전 과제	쟁점	대응 방향
기술환경	- 정보관련 기술의 발전 - 미디어기술의 변화 가속화 - 기술에 의한 노동대체의 위기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한 정보자원의 연계, 공유 체계구축 기술격차에 의한 디지털 불평등 완화 면대면 서비스의 확대 디지털 시대에 전통적 역할들을 갱신
지역환경	- 공동체의 붕괴 - 공동체의 현안들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 강화지역사회에 파급력 있는 서비스 기획문화서비스 리더로서의 역할 확대
정보환경	인쇄매체의 선호도 감소대안적 정보제공자와 경쟁심화정보과잉, 가짜정보의 증가	매체활용 교육의 강화정보의 큐레이팅진짜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민 지속
수요환경	- 정보과잉에 대한 피로도 증가 - 도서관 공간공유 요구 증가 - 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요구 증가 - 새로운 수요자 계층 직면	- 공간의 개방성, 포용성 확대- 정보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 아동, 노인을 위한 서비스 강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제3차 종합계획(2019~2023년)의 비전과 목표

□.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

비전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핵심가치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

4대 전략방향 및 13대 핵심과제

1. 개인의 가능성 발견

- ①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 ②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 ③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2. 공동체 역량 축적

- ④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 ⑤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 ⑥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3. 사회적 포용 실천

- ⑦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 ⑧ 공간의 개방성 확대
- ⑨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 ⑩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 ①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 ②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 ③ 도서관 인프라 확대

□.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

핵심과제		추진과제		
	1.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 서비스 확대	1.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2.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2. 이용자 정보접근의	1.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편의성 확대	2.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1. 개인의		1.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가능성을		2.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발견하는		3.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도서관	3.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	4.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서비스 강화	5.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6.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7.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8.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4.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1.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구축	2.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 체계 구축		
2 공동체의 역 량 을	5.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1.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키 우 는 도서관	6.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1.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도시ゼ		2.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3.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7.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1.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3. 사회적 포 용 을 실천하는 도서관		2.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8. 공간의 개방성 확대	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핵심과제		추진과제		
	9.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연계	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10.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1.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2. 사서의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3.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11.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2.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3. 도서관 국제교류의 강화		
	12.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1. 오픈액세스(open access) 체계구축 및 확대		
		2.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13. 도서관 인프라 확대	1.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2.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제3차 종합계획(2019~2023년)의 정책과제

1 /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②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❸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1-1-1.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포스트 휴먼시대에 인간소외, 삶의 균열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미래 역량 강화 필요
- 기술이 대체할 수 없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량인 감성지능, 윤리지능, 공공지능 등의 강화를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확대 필요
 - ※ 셀프러닝(self learning)의 발달로 인공지능AI의 진화 속도 빨라짐. 인간지능을 앞서는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특이점(Singularity)'을 2029년경으로 예상함1)
-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량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도서관은 대안적 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음

■ 추진과제

○ 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시민역량* 발견 프로그램 확대

*<클라우스 슈밥이 주장하는 인간의 미래역량>

맥락지능(context): 인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정서지능(emotion):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결합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맺는 능력 공공지능(public): 공동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능력

- 인문·문화·예술·체험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 (공공도서관) 체험, 협업 및 창작공간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디지털리터러시 교육공간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 생애주기별 시민역량 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생애주기별 시민역량 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인간의 사회성·정서발달 단계,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에 대응하는 시민역량 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¹⁾ 인공지능 연구자 레이 커즈와일 예측

1-1-2.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기술적 연결을 통한 반쪽짜리 소통, 고립된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과거 집단적 문화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각으로 시대는 진행 중이지만, 권리주체들이 만나서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함
- 서로 만나서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의 차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통해 보다 성숙한 사회로 이행 필요
- 세상의 모든 지혜가 축적된 도서관은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 독서가 혼자서 즐기는 취미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도구로 진화 중
- 생각의 나눔이 단순히 인식 속에서만 진행되지 않고, 현실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모색 필요

- 독서공동체,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 '함께 읽기'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
 - 독서토론 공간 대여 지원 등
 - '함께 읽기(Social Reading)'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1인 가구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함께 먹기(Social dining)'와 유사한 형태의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아동·청소년을 위한 토론형 독서프로그램 활성화
 -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읽기-쓰기-토론을 연계시키는 독서프로그램 확대
- 독서 현장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
 - 독서학습과 현장학습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다양한 가용 자원의 연계를 통해 배움의 현실적용, 실천이 가능한 학습모델 개발 및 확산

정책과제 1-2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1-2-1.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도서관 활용이 어려운 수요자들 존재 ※ 도서관 운영시간과 이용 가능시간의 비대칭으로 인한 정보접근성의 제약
- 시간과 공간 접근성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보서비스 확대 필요
 - 정보환경과 기술의 변화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접근 및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서관 정보화 분야에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디지털 정보소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향후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의 증가는 디지털 정보소비를 가속화 시킬 것임
- 정보습득의 즉시성(Discovery to Delivery)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민간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정보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추진과제

-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
 - 저작권 소멸, 사용승낙 자료를 지속적으로 디지털화 및 원격서비스 확대
 - 공공, 학교,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책 구독 서비스 점진적 확대
 - 고아저작물 등 공유자원 발굴 추진 및 인터넷서비스 확대

*<전자책 서비스(e-reading application) 사례)

◆ 대학도서관

- 코넬대학, 스탠포드대학, 듀크대학 등 전 세계 30,000곳 이상의 도서관이 OverDrive 앱을 통해 서비스

◆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 공공도서관은 RIBBY, 학교도서관은 SORA 앱을 통해 전자도서 서비스

- 도서관 WiFi 설치의 전면 확대
 - 공공도서관 와이파이 전면 확대 설치('17년 93.1%)
 - 학교도서관 와이파이* 우선 설치 및 확대
 - * 교육부 국정과제(54-1,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로 추진 중인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 검토
- 모바일 도서관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
 - 모바일 기술을 통해 출입 관리, 도서대출, 도서관 콘텐츠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

1-2-2.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책 이용과 관련해서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여전히 아날로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고 있음
- 아날로그 서비스의 경우라 할지라도 물리적 접근성, 이용의 불편함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책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필요
- 이런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책이음, 책바다, 지역 내 상호대차, U-도서관 등 관련 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여전히 홍보의 부족, 참여가 여의치 않은 도서관이 존재하여 불편 초래

-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 대출증 공유시스템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 확대 구축('18년 1.701개관 참여)
 - 학교도서관과 전문도서관 등의 참여 확대 유도
 -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 서비스*' 확대('18년 기준 공공 916개관, 대학 115개관)
 -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 생활 속 U-도서관* 확대
 -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U-도서관 확대
 - * 공공장소에 무인 대출·반납기기를 설치하여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

정책과제 1-3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 ▷ 생애주기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 ▷ 생애주기에 따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당 생애주기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도서관서비스 및 해당 도서관>

1-3-1.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와 장서개발 필요
 - 도서관 서비스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층별, 연령별, 관심사별 등 다방면의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장서개발정책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적합한 장서개발에는 어려움 존재

- 도서관장서개발정책 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연구 및 수요조사 반영
-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추진 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 반영
 - 과종별 수요자 맞춤형 도서과서비스 확충과 활성화 계획 수립 촉구

1-3-2.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정보의 양 증가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피로도 증가
 - 정보와 콘텐츠 양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음
 - * 2008년~2011년까지 생산된 정보의 양이 그 이전까지 생산된 정보의 양을 압도(World Economic Forum, 2012)
 - ※ 2017년 출판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 일반도서 신간 발행 종수는 59,724종으로 한 달에 약 5천여 종 발행
- 정보의 전문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정보제공 필요
 - 도서정보 및 사용자 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보화 시대에서 과잉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함
 - 도서관은 물리적인 장서의 규모를 늘리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콘텐츠의 활용 목적에 따라 적절히 큐레이션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제공하는 작업이 중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큐레이션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 필요
- 정부의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정책 강화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 제공 필요
- 도서관 내부의 장서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대출 데이터와 온라인 서점 데이터, 공공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도서관 특성에 적합하게 수서 및 기타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자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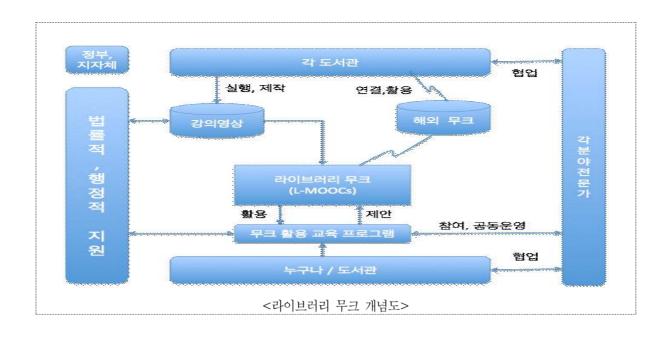
-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 참여도서관 확대
 - * 도서관 데이터를 연구자, 개발자, 도서관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공유센터
 - ※ '18년 기준 '도서관 정보나루'에서 849개 참여도서관의 대출 현황 및 대출인기 도서 분석 가능, 연도별 공공도서관 대출 분석결과 제공
-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확대
 - * 기존 자료에 가치를 덧붙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 자료의 관리·기획·설명을 통해 정보가공
 - 디지털 큐레이션(학술정보, 주제분야), 북 큐레이션 등 도서관에서 정보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

1-3-3.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 현황 및 필요성

- 미국에서 시작된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의인 무크(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급속하게 확대
 - 무크는 경제적, 사회적, 국적 등 모든 부문에서 제한 없이 누구나 원한다면 세계 최고의 강의에 접속하여 공부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학문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교육개혁이자 평생학습 방법
 - 스탠포드대학교 컴퓨터 공학 교수 앤드류 응(Andrew NG)과 다프네 콜러(Daphne Koller) 박사가 2012년 설립한 코세라(Coursera)는 현재 190여 개국 100여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컴퓨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 등 25개 분야 714개 수업 운영, 수강자 수는 약 2,200만 명
-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한국형 무크(K-MOOC, http://www.kmooc.kr)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의 참여 미흡
 - ※ '18년 31개 참여기관(대학 등)에서 377개 강좌 운영 중
 - 아직 국내에서 제공되는 무크 강좌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선택 폭이 좁고, 해외 제공 무크는언어 등의 제한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음

- 라이브러리 무크(L-MOOC) 플랫폼 구축 운영
 - 도서관 강좌, 강연 내용을 영상제작하고 개방형 플랫폼에서 제공
 - 강연자와의 저작권 문제 등 법률적 근거나 표준 매뉴얼 등 제공
 - 도서관의 영상제작 능력 향상을 위한 설비 및 기술지원 제공
- 국내외 무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콘텐츠 개발에 시민참여 유도 및 전문가와의 협업형 공유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1-3-4.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생애초기에 책을 가까이함으로써 인간적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북스타트 등 독서시작 프로그램의 중요성 증가
- 향후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이 더욱 가속화 되고, 아날로그 환경이 제거되면 생애초기 책 접촉 결핍으로 인해 지속적인 생애 기술종속이 심화될 수 있음
- 평생학습의 출발점으로서 책과 친해지는 생애초기 독서습관 필요

-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 북스타트 운동 등 영유아 프로그램 지속적 확대
 - 북스타트 부모교육 확대

<북스타트 시행 현황('15. 12. 31)>

시도구분	시행기관	꾸러미수	시도구분	시행기관	꾸러미수
서울	44개	17,498개	전남	5개	3,350개
경기	24개	12,868개	경남	25개	11,766개
인천	14개	5,999개	부산	3개	2,035개
충북	10개	16,162개	울산	15개	4,492개
세종	2개	303개	대구	2개	1,655개
충남	7개	3,734개	경북	12개	3,793개
대전	7개	1,052개	강원	10개	4,501개
광주	5개	2,870개	제주	3개	1,133개
전북	5개	1,112개			

1-3-5.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창조적 인재 양성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학교도서관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교과 융합·연계 수업에 대한 필요성 증가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학교 교육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문제 해결 기능, 자의적 탐구기능, 비판적 사고기능을 신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 교육 필요
-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따라 창의력, 문제해결력,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과연계 독서교육 지원 필요
 - ※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평가기관의 63.0%가 '16년 기준 학교도서관의 연평균 도서관 협력 수업시간(공동수업) 6시간 이하로 나타남
- 평생학습 사회에서의 학교도서관은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교과연계 교수학습 강화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정보·매체 활용 교육 확대
 - 교과연계 교수학습 지원
- 자기주도적 학습기회 제공
 -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도서관 활용 수업 확대
-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통한 학습 모델 구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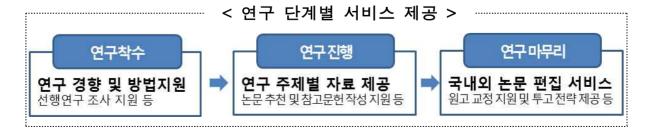
-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협력사업 진행
- 학교-공공 협력형 독서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1-3-6.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대학도서관은 학내 연구자의 다양한 학술정보 요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에 기여 필요
- 대학의 연구자들은 학술연구 자료의 확충과 연구지원 서비스를 대학도서관의 핵심 역할로 인식하고 서비스의 질 개선 요구
- 연구 전 과정에 대한 대학의 연구자 지원체제 부족

- dCollection*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성과분석 기능 중심으로 개선
 - * Digital Collection의 줄임말로 대학 학술정보가 생산과 동시에 유통되는 최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국가적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 시스템
 - (연구성과 수집) 교내 연구관련 기관(연구처, 산학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해 연구자 및 성과정보 (학술지 투고논문, 출간자료 등)와 외부 인용 데이터를 활용한 인용정보 수집
 - (연구성과 분석·활용) 연구활동과 성과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인적 정보를 제공하여 소속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워 및 연구방향 제시
 - (성과 확산) 고도화된 dCollection은 연차적으로 대학에 보급하여 안정적 확산 및 운영 우수대학 사례에 공유
- 연구자 맞춤형 연구지원 서비스
 - 연구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수행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1-3-7.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생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용하기 편한 전문정보(학술정보, 기후정보, 건강정보, 법률정보, 공공정보 등)에 대한 요구 증가
 - 전문정보 제공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은 통합 주관 부처가 없이 다양하고, 사립 전문도서관이 많아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 '18년 평가기준 전국 전문도서관 609개관,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참여 도서관 35개관(5.7%)

■ 추진과제

□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생활형 전문정보 공동 활용 운영전략 수립
 - 전문, 공공, 학교, 대학도서관과 전문정보 협력서비스 체계 구축
- 전문도서관 전문자료의 디지털화 지원
 - 국립도서관, KISTI 등이 협력사업으로 추진
- 국가 환경·기후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 대국민 환경 및 기후 정보에 대한 서비스 확대
- 국가 보건·의료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 대국민 보건·의료 정보 서비스 확대
- 국가 공공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 ※ 정부 및 공공, 전문도서관협의회 208개관('18년) 구축
 - 희귀정책정보 디지털화 지원 및 대국민 공공정보 개방 확대 지속

□ 전문도서관 현황 파악

- 전문도서관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 전문도서관 현황 갱신 및 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1-3-8.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1-3-8-1.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지식자원의 접근·보존 기반 고도화 필요
 - 온라인자료와 디지털파일의 포괄적인 납본 수집의 한계
 - 세계 서지 환경 변화에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및 공유 생태계 조성 필요
 - 국내외에 산재·유출된 한국 고문헌의 통합 관리에 어려움
 - 보존서고의 수장능력 포화 대비 국가문헌의 보존·관리 대책 시급
 - ※ 연간 60여만 권 장서 증가로 2023년 수장 공간 부족 예상
- 이용자 중심의 국가도서관 서비스 강화 필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필요
 - 국가대표도서관에 걸맞은 다양한 계층별 서비스 개발 필요
 - 이용자와 소통하는 쌍방향적 홍보활동 확대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서비스 강화 필요
 - 디지털자원의 체계적인 장기보존관리 대책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정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 필요
 - 디지털자원의 공유융합·연계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국내외 도서관 협력·리더십 강화 필요
 - 전국 도서관 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재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공간 및 전담인력 확보 미흡
 - 해외 한국학 진흥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확대 필요
 - 남북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준비 필요

■ 추진과제

□ 국가지식자원의 접근·보존 기반 고도화

- 온라인자료의 납본 정착을 위한 납본 지침 보완
- 글로벌 지식정보 및 정책·연구자료의 전략적 수집

- 차세대 국가서지서비스 전략 수립 및 국가자료종합목록 서비스 고도화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고도화 및 활용성 강화
- 국가문헌 보존을 위한 (가칭)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

□ 이용자 중심의 국가도서관 서비스 강화

- 전문화된 연구정보 및 정책정보 서비스 기능 수행
- 인문·문화예술 특화 콘텐츠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강화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 ※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및 탈북민 등
- 도서관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온라인 홍보 채널 다각화

□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지능화

- 지역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코리안 메모리' 프로젝트 추진
- 개방형 연결데이터(LOD) 기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확대
- 디지털화자료 이용협약 도서관 확대 및 지원 강화 ※ 병영, 농산어촌 등 정보취약계층 디지털 서비스 지원 확대

□ 국내외 도서관 협력·리더십 극대화

-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 및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 도서관 인재 교육을 위한 (가칭)국립도서관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 해외 한국문화원 및 한국자료실(WOK) 운영 지원 강화
- 한국학 사서 지원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1-3-8-2. (국회도서관) 국회와 국민을 위한 의회·법률정보 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국회도서관의 의회정보지원 기능 강화 필요
 -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의회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 국민의 입법지식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활용
 - 외국정책정보서비스 전문화 강화 필요
- 의회정보서비스 적시성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의회정보회답 및 데이터베이스의 시의성 확보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고품질의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DB 구축으로 입법지원 기능 제고
- 상임위원회 전담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지식정보체계의 전문성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 신속하고 선제적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필요
 - 신속한 법률정보회답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법률정보분야 조직 기능 강화 방안 모색
 - 국내외 입법현안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여 선제적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주요 법률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폭넓은 법률정보 제공
- 온·오프라인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
 - 망라적 법률자료 수집 및 법률 전문가에 의한 외국 법률자료의 균형 잡힌 장서 개발 추진
 - 법률정보의 양적 증가 및 전문화에 따라. 디지털 법률정보 요구와 법률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 대두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의정서비스 강화 필요
 - 데이터분석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의정지워 필요
 - 소셜미디어, 도서관 지식데이터, 국가통계 등 입법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와 지식정보의 융합분석 서비스 강화

□ 고품질 의회정보 제공

- 의회정보회답 제공
 -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실정보 요청에 대한 정보회답서비스로 국내 외의 정책현황, 사례, 통계 등 입법 관련 사실정보를 조사·검색하여 제공하고, 주요 국가 언어담당 해외자료조사관이 외국의 제도 및 정책사례를 조사·번역하여 제공
-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 입법 현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국내외 주요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팩트북* 발간
 - * 팩트북: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시실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시리즈」로 발간하는 자료집), 「최신정책정보: 국내/국외」등

□ 의회정보서비스의 적시성 및 전문성 향상

- 의회정보DB 구축 및 서비스
 - 국회휴먼네트워크 서비스, 입법지식서비스, 공공정책정보(인터넷자료)DB, 국회의원정책자료DB,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DB 등

□ 법률정보발간 강화 및 신속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입법 현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입법사례 및 시사점을 선제적으로 발간
- 국회의원의 관심이 높은 영미법, 일본법을 비롯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회답 제공을 위해 법률 전문가 확충
- 현안이 되고 있는 국내 법률에 관련된 주요국 법률의 조사·수집·번역 및 제공
-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교육을 통한 법률정보 리터러시 제고
- 법률정보DB 구축 및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 추진
 - 외국법률번역DB 구축, 법률쟁점DB 구축, 외국입법사례DB 구축
 - 법률자료의 디지털화: 국회도서관이 수집한 인쇄본 형태의 법률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법률정보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등 국내 법률정보기관과의 인적·물적 협력을 통한 법률정보 공유 및 자료 상호 이용 확대
-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법률정보DB와 타 법률정보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융합 서비스 개발 검토
-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미국법률도서관협회(AALL) 등 법률도서관 관련 국제 협회 활동을 통해 외국 법률도서관과의 네트워크 마련

□ 지능형 입법・학술・통계 전문정보 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 시스템' 고도화 및 맞춤형 분석서비스 강화
- 국회도서관 '빅데이터 전문센터'와 '연구데이터센터(RDC)' 기능 강화

1-3-8-3. (법원도서관) 국가법률정보 대국민서비스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심층적인 맞춤형 재판지원 서비스 강화 요구
 -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재판업무를 위한 심층적인 맞춤형 재판지원 서비스의 특화 및 전문성 강화 요구
 - 축적된 맞춤형 재판지원 DB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 필요

- 확대된 대국민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인적 인프라 확충 필요
 - 법원도서관 청사 이전으로 대국민서비스 확대 실시 필요
 - 확대된 대국민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사서직 전문인력 필요
- 분산된 법원 법률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재정비를 통해 이용자 불편 해소 필요
 - 법원도서관의 주요 콘텐츠인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디지털도서관,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 등 주요 법원 법률정보시스템의 분산 및 중복으로 이용자 불편 및 운영의 어려움 초래
-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법문화의 적극적인 해외홍보 필요
 - 국내판결과 법 관련 논문의 번역 확대 필요
 - 번역 전문 인력 및 예산 미비
- 열람실 대국민 개방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확충 필요
 - 그동안 법원도서관 열람실이 대법원청사 내에 위치하여 청사보안 등의 문제로 제한되어있던 소장 정보의 대국민서비스를 일산 청사 이전을 계기로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함

- □ 법률정보의 대국민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대국민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사서 인력 확충
 - 법률자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를 통하여 법률전문도서관 역할 강화
- □ 법원 법률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재정비
 - 법률정보의 대국민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법원 법률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재정비 필요
- 청사 이전으로 변화된 오프라인의 대국민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한 디지털도서관 및 홈페이지 개편사업 추진
- □ 이용자 맞춤형 법률정보 서비스 확대
 - 열람실 내 조사연구실, 세미나실 등 법률연구공간 이용 활성화
 - 법률종사자 등 이용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법률정보 제공
 - 생활밀착형 법률 소양 강좌 추진
 - * 법원 내 우수한 교수진을 활용하여 지역시민들의 생활과 연계된 주제의 법률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

2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❶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 체계 구축
- ②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❸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정책과제 2-1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2-1-1.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 현황 및 필요성

-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 관종별 도서관의 칸막이로 인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한계가 있음
- 공공자원의 효율적 대국민 전달을 위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 지역 내 단위도서관의 효과적, 효율적 협업을 위해서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통합관리체계 필요
 - 지역 내 개별 도서관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개별적으로 만족시키는데 한계
-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도서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과제

□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정립

-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상화 방안 마련
 - (중앙) 규모, 기능, 역할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 정상화 지원
 - (지역) 지역대표도서관 정상화 계획 마련
-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 개선 지원체계 구축
 - 도서관 서비스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지역도서관에 도서관서비스 보급
 - 도서관 컨설팅, 세미나 개최, 교육 지원(국립중앙도서관 협력 추진 검토)
 - ※ 도서관법 제23조 제3호에 근거
- 지역 내 지자체 간, 타 관종 도서관 간 공동 협력사업 운영 지원체계 구축
 - 인접 지역 협동수서 및 상호대차 서비스 등
 -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 기능 강화

□ 지역 도서관통합관리체계 구축

○ 지역 내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포함하는 지역 도서관통합관리체계 구축

- ※ 도서관법 제23조 제3호에 근거
- 1차: 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구축
- 2차: 타 관종 도서관으로 확대 구축
- 지역 내 모든 관종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검색서비스 제공

<부산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 2019년 부산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지역도서관이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부산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 부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모든 도서관의 자료관리 체계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회원 맞춤형 미래 도서관 서비스 기반 마련

□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공유체계 구축

-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지역 간 불평등 해소
- 지역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 인근 지역의 공공도서관 간, 공공도서관 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지식 상호 공유
 - ※ 도서관 평가 지표로 활용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전자책, 오디오북, 학술데이터베이스 등의 자원 확보와 이용 활성화 도모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이용자 교육 등에 관한 지식 공유

2-1-2.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 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디지털아카이빙시대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자료 보존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인 및 지역사회 내교류와 사회·문화·경제적 성장 동력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지역 향토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발행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지역대표도서관 권한의 실효성 확보

〈**근거**〉 도서관법 제26조(도서관 자료의 제출)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지역단위의 장서보존 기능 개선 필요
 - 공공도서관 공통 문제로 장서수장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지역 단위 공동보존서고 설치를 통한 공간 확보 및 효율적인 공간 운용 필요성 증가
 - **※** 공동보존서고 설치: '18년 2월 기준 총 5개 지역(대구, 대전, 전남, 울산, 부산)
 - 공동보존서고 운영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실질적인 공동보존서고로서의 역할에 한계

□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자료 납본 수집력 강화

〈**근거**〉 도서관법 제23조(지역대표도서관 업무) 제5호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자료 납본, 보존, 디지털화 등 협력체계 마련
 - 디지털자원 및 지역 향토자료 아카이빙 지원 시스템 구축
- □ 장서보존 기능의 효율적 개선
 - 공동보존서고 설치 확대 및 운영가이드라인 수립
 -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 공동보존서고 17개 지역으로 점진적 확대
 - 지역 공공도서관 및 타 관종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 중, 지역 지식정보 자산으로 영구 보존이 필요한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지역대표도서관에서 보존
 - ※ 영구 보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결정
 - 지역 단위의 거점형 공동보존서고 운영 확대
 - 영구보존이 필요하지 않지만 임시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여 공동 활용
 - 도서관 간 협약을 통해 거점형 공동보존서고로 이관된 임시 보존 자료는 협약 도서관에서 공동이용, 일정기간 이용이 없는 자료는 제적
 - 공공도서관에서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자료 중 지역 지식정보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는 거점형 공동보존서고로 이관 또는 제적

*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시스템 구축 추진

구분	내 용
사업내용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가이드라인 수립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시스템 구축
	- 공동보존서고 운영가이드라인 수립·연구 및 운영시스템 구축
	- 시범 지역대표도서관 선정운영
단계별 계획 추진	- 시범 지역대표도서관 확대운영
	- 지역대표도서관에 공동보존서고 운영시스템 보급
	-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안정화 지원
기대효과	- 공공도서관의 장서수장 문제 해소 - 공공도서관 공간 확보 - 방대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 - 공공도서관 운영예산 절감 - 공공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최신성 확보

정책과제 2-2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2-2-1.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외에 산재 또는 유출된 한국 고문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문헌의 국가적인 통합관리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 수집력 강화를 위하여 고문헌의 다양한 수집 경로 개발 및 수집의 체계화 등 고문헌 통합관리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립세종도서관이 인문·문화예술 분야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정보 서비스와 함께 인문·문화예술 분야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장서 확충이 필요
 - ※ 국정과제(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지 않는 지역의 생활사 자료(삶의 기억)들이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열악하게 보관되고 있어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
- 지역의 쇠퇴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세대에 전해줄 지역의 다양한 삶의 기억들이 유실될 우려
 - ※ 2018년 현재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
- 국내외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향토자료 등 지역 정보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 고문헌 통합관리 강화
 - 고문헌 구입, 수탁 및 수증, 디지털자료 수집 확대
- 국가문헌의 포괄적 수집 강화
 - 납본제도 시행(1965년) 이전 자료의 전략적 수집
 - 국외 한국관련 자료, 기록물 수집 확대
 - 인문·문화예술 자료 및 정책·연구정보의 전략적 수집
- 공동체의 삶의 기억 수집·보존·관리 체계 구축 지원
 - (국가) 국가적 차원의 지역 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
 - ※ 「코리안 메모리(Korean Memory) (가칭)」기억과 회상 프로젝트 추진
 - (지역)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수집·축적, 창조활동 지원 체계 구축

<경기도 메모리>

- ◆ 목적: 경기도의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미래세대에 전승을 통해 경기도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구축
- ◆ 기능: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보를 집대성하고, 경기도민의 발자취와 활동을 기록화한 경기도의 역사문화관으로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는 51,868건
 - (학교) 학내 삶의 기억 수집·보존 관리체계 구축
 - (대학교) 학내 발간 연구자료의 수집·보존 관리체계 구축
 - 지역의 자료 보관 기관(사람) 협력·지원 강화
 - 지방문화원 등 지역의 향토자료를 다수 보관하고 있는 기관(사람)에 대한 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관리 지원 강화

※ 2016년 지방문화원 중 자료관리 인력이 있는 곳은 4.8%, 아카이빙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 문화원은 16.7%로 자료관리 취약으로 인해 자료의 소실 위기

정책과제 2-3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2-3-1.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지리적·정보적·문화적 접근성이 뛰어난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에서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진화 중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삶의 편의성 증대가 예상되나, 개인화의 가속화를 통한 공동체의 붕괴 등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문화의 중심인 도서관의 역할 증가
- 인간의 소외, 주민의 소외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 제안, 직접 실행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필요
 - 인간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두고, 공동체 복원을 통해 정주율을 높일 수 있으며, 주민의 문제를 공동체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공동체 활동 환경 필요
-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지역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 마을 소모임 활동 및 마을 상담·컨설팅 지원
 - 주민 참여형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주민 공론의 장으로 적극적 활용
- 지역 생활문화모임 활성화
 - 문화교실 공간, 독서활동 공간, 각종 회의, 모임, 강의 등 공동체 활동 공간 확대

-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공동육아, 마을 학교, 평생교육 등 공동체 연결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

2-3-2.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학교도서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독서공간을 넘어 학습, 토론, 행사,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변화가 요구됨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공동체의 중심역할 수행 필요

■ 추진과제

-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교사, 학부모, 학생 커뮤니티 체계구축 및 활성화
 -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험학습 개발 및 확산
- 교육공유공간(Education Commons) 기능 강화
 - 독서클리닉, 학습동아리, 독서토론회 지원
 - 학부모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교원 독서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

2-3-3.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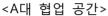
■ 현황 및 필요성

- 단순히 정보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도서관의 개념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변화
- 강의듣기, 읽기보다는 '서로 설명하기'가 학습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어 창의·협업하는 학습활동 공간의 확대 필요
- 대학도서관은 이용자가 정보를 습득하는 공간에서 직접 생산, 창조하는 공간으로의 역할 수행 필요

○ 토론·협업활동, 세미나, 휴식 등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장소로 전환

창의 협의 및 메이커스페이스 예시







<B대 메이커스페이스>



<C대 Creator Library>

- 기존 열람실의 역할에서 소통과 창조의 공간으로 전환
-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교육 확대
 - 메이커스페이스 등 도서관 공간과 기능이 새롭게 확대됨에 따라 AR, VR 체험 등 디지털 기기 활용교육 실시
 -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정보기기 활용 시 책임, 규율 등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 소양 교육 지원

●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② 공간의 개방성 확대

-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❸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정책과제 3-1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3-1-1.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 현황 및 필요성

- 고령화, 국제화,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비대칭,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정보불평등 완화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 도서관이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해야 하는 법적근거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 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서관법」이 있으며, 정보불평등 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규정한 조항이 있음
- 도서관법에서는 정보불평등 대상으로 핵심계층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산어촌 주민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정보불평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
 - ※ 도서관법에는 다문화가족은 정보불평등 대상에 없음
-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시대에 맞는 정보불평등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 마련을 위해서는 정보불평등 대상 판별기준 등 마련 필요

■ 추진과제

- 도서관에 최적화된 정보불평등 지수 측정도구 개발
 - 지역, 세대, 계층 간의 정보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 개발
- 정보불평등 지수 측정을 기반으로 한 지원정책방안 모색
 - 정보불평등 유형별·대상별 정보불평등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개발
 - 지역 간, 세대 간 불평등 해결방안 마련

3-1-2.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디지털 기기 이용 등 정보격차 심화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특히, 정보불평등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낮은 편으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서비스 강화 필요
- ※ '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일반국민 대비 정보불평등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5.1%
-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화 교육, 정보화기기 개발·보급, 웹 접근성 제고,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4가지 정보격차 해소 정책 추진
- 도서관은 사회적 약자집단이 지식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되는 악순환 고리, 그에 따른 상대적 격차와 부정적 효과 등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정보불평등 계층 정보 및 매체활용 교육 강화
 - 맥락이해 문해력 교육 개발 및 보급
 - 미디어 활용 교육 개발 및 교육 강화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정보화 교육 추진
 - 농산어촌 '정보화마을*'과 연계한 도서관 정보화 교육(ex. 농산어촌 어린이 대상 코딩 교육) 지속
 - *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산어촌 간 정보격차해소 및 농산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2001년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추진한 사업(327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과 연계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군인, 환자, 수용자 등 정보획득에 불리한 처지에 있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환경 개선 및 서비스 확대 필요
 - 특수환경 이용자들의 여가, 미래에 대한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 특수환경 이용자들을 위한 전문 정보서비스 지원 확대 필요

- 특수환경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인프라 개선 필요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며, '19년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대응방향 설정 필요
 - 병영, 병원, 교도소 도서관 등의 자료는 대부분이 기증 수집에 의존하고 있고, 지원예산 부족으로 도서 구입 제한이 있어 양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 ※ (장애인도서관·자료실)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2012), 대체자료 제작예산 증가('14년 17억 → '17년 28억원),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자료실('13년 89개 → '16년 85개) 감소 및 장애인코너('13년 151개 → '16년 240개) 증가
 - ※ (병원도서관) 시설·자료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현황 부재
 - ※ (병영도서관) 대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운영 중이며, 도서 평균보유량(3,777권), 장서 보유기준 (6,000권)에 못 미침
 - ※ (교도소도서관) 1관당 소장 장서 평균 7,702권, 연속간행물 0.6종, 1관당 연간 증가 도서(인쇄)자료 473권, 1관당 평균 자료 구입비(결산액) 16만 원 미만

-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조사·연구 강화
 -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자료실(코너) 확대('17년 26.4% → '23년 35%)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23년 100개관)
 -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다변화 및 확충
 - 대체자료 공동 활용체계구축 및 원문서비스 강화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기능 강화 및 민간장애인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 추진
 -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전국 40개 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목록(30만 여건) 및 원문정보(10만 여건) 이용 가능,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이용자수: ($^{\prime}16$) 2.917명 \rightarrow ($^{\prime}17$) 23.244명
- 특수 환경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 (병원도서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병영도서관) 생애의 단절 없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서비스 강화
 - (교도소도서관) 수용자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차원에서 교도소도서관 활성화 추진
 - 수용자의 교정, 학력신장, 인성함양, 사회복귀 등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 접근 강화

- 특수 환경 이용자 도서관 인프라 개선
 - 장서 보유 확충 및 양서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 자료열람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확보
 - 상호대차, 이동도서관, 방문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한 접근성 개선

3-1-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보편적 지식정보 접근 및 평등한 기회 제공, 독서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도서관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경제적·신체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도서관 방문·접근 자체가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 필요
-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도서관이 원거리에 소재하고, 주거지역이 분산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수단 등이 취약하여 접근성이 낮아 정보소외 영역에 있는 대상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우편서비스 등 확대 필요

-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
 -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농산어촌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 농산어촌 지역 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및 순회문고 운영
 - 지역문화 전문인력(활동가)을 활용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 농산어촌 지역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도서관(연 100개관)
 - 농산어촌 생활형 공공시설에 U-도서관 설치 검토
- 우편배달 서비스 확대
 - 장애인, 임산부 및 영아, 노인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정보불평등 대상을 위한 우편도서대출서비스 확대

정책과제 3-2

공간의 개방성 확대

3-2-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공공 공간의 기능적 폐쇄성, 개인의 점유 등으로 인해 공간의 평등하고 공정한 활용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누구나 도서관 공간을 공평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개방공간의 지속적 확대 필요
 - 특히 공간이용의 결정에 관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빈곤·소외계층, 노인계층들을 위한 공간 확대 필요

■ 추진과제

- 공유 개방공간의 확대
 - 독서실 기능의 학습공간을 자료이용공간으로 점진적 전환
 - 도서관 1층 공간은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기능(휴식 공간, 카페 등) 부여
 - 다중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배치 추진
- 공식/비공식 사회적 안전공간 기능 수행
 - 각종 재난(지진, 폭염, 한파 등)시 도서관이 사회적 피난처 역할 수행
 -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서대상 교육 실시

<사회적 안전공간 가이드라인의 목적>

- 각종 재난 발생 시 도서관이 사회적 피난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도서관 내부 자원의 역할 및 협력 사항을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안전공간으로써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2-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 개별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서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도서관 현황파악도 미흡
 - 교통약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년 현재 14,963명으로 총 인구의 28.9%가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인구(교통안전정보 관리시스템)
 -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 공공도서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필요
 - 공공도서관은 서비스 및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공공도서관은 문화기반시설 중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아, 기본적 문화서비스 시설로 기능하므로 보다 세심한 환경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함
 -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필요

- 도서관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 조사
-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개선
 - 신체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물리환경 개선
- 도서관 안내정보 개선
 - 신체적, 언어적 어려움 없이 이용 가능한 안내정보 설치
-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영유아 동반자 등에 대한 편의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서비스 확대
 - 의사소통 보조기기(통신중계 서비스, 화상전화기 등) 활용 확대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도서관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도서관서비스 접근이 여전히 어려운 계층이 존재
 - 소외계층의 필수적인 서비스와 도서관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향유기회 제공
 - 도서관이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 생애별 '삶의 문제'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 이용자 욕구의 중복과 다원화로 인해 단일 서비스의 한계 직면
 - 문화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중복욕구를 지닌 수요층의 증가
 - ※ 부부+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회서비스 중복욕구 가구 비율은 43.2%
 - 선도적인 문화서비스기관으로서 삶의 복합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체계 마련 필요

- 영유아 어린이. 여성 대상 서비스 강화
 - 저출산시대 대응을 위한 가족친화적 도서관서비스 확대
 - 문화·인문교육과 아이 돌봄 융합모델 개발 및 확산
 - 지역의 여건에 따라 도서관 내 놀이공간, 도서 연계 키트(도서+놀이감) 개발·보급
- 노인 대상 서비스 강화
 - 예방적 건강정보의 제공 창구로 도서관 활용
 - 도서관과 보건·복지 시설과 연계 강화
- 구직자 대상 서비스 강화
 -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인생 이모작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취업정보센터와 연계 강화
- 소외계층 서비스 강화
 - 소외계층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와 도서관 서비스 연계
- 도서관의 포용적 서비스 확장을 위한 서비스 제도 개선
 - 회원가입서비스 인증제 개선 등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증대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 '17년 재외동포 약 7백 43만 명, 전년대비 증감률 3.4%,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1위 중국(약 2백 55만 명), 2위 미국(약 2백 49만 명), 3위 일본(약 82만 명)
- 국내 다문화사회 가속화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재한외국인 간 상호 이해 및 존중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필요
 - 다문화서비스 개발과 보급 확대, 지원 강화 필요
 - ※ '18년 5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장기체류+단기체류): 약 225만 명(국내 인구 대비 약 4.4%)
 - ※ 국내 이주민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자 수(국가도서관통계): 2017년 102만 명을 넘었으며, 최근 6년간 공공도서관 이용 이주민 수 4배 이상 증가 추세

- 재외 한국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 해외 한국 어린이를 위한 전자책서비스 검토
- 국내 이주민(외국인 포함)을 위한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 다문화서비스 개발과 보급 확대. 지원 강화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서비스 업무 담당자 교육과 세미나 개최, 우수사례 발굴,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 시스템 구축 운영, 홍보 등) 지속 추진
 - 여성가족부(레인보우지 발행), 법무부(이주민 조기적용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관련 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 국내 주민들의 다문화적 포용성과 상호 문화이해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 다문화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 사서의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②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 도서관 국제교류의 강화

③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 오픈액세스(open access) 체계구축 및 확대
-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4 도서관 인프라 확대

-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정책과제 4-1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4-1-1.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도서관 직원 및 전문인력의 부족 심화
 - (공공도서관) 지난 5년간 공공도서관의 수는 177개 관 증가한 반면, 1관당 도서관 정규 직원의 수는 0.9명 감소, 사서 직원은 0.03명 증가하여 정체한 수준
 - ※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직원 수: 8.82명('13년) → 7.92명('17년)
 1관당 정규사서직원 수: 4.25명('13년) → 4.28명('17년)
 -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교수학습활동과 독서교육의 적극적 수행 곤란
 - ※ '17년 1관당 사서교사 수는 0.077명, 1관당 사서자격 보유 직원은 0.34명
 - (대학도서관) 연구지원 서비스 지원 등 대학도서관 역할 확대에 맞추어 인력 증원 필요
 - ※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000명당 사서직원 수는 '17년 4년제/대학원이 1.1명. 전문대학은 0.5명
 - (전문도서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문도서관 609개 기관의 1관당 정규직 직원수는 0.19명, 정규직 사서는 0.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병영도서관) 일부 사단급 이상 부대 사서편제(군무원)를 제외하고는 전문사서 부재로 주로 정훈병이 병영도서관 관리
 - (교도소도서관) 전국 52개 교도소 도서관 사서 인력 전무하며, 교정직도 전임 직원이 배치된 교도소 도서관은 8곳으로 대부분 겸임
 - (장애인도서관) '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민간 장애인도서관 39개 기관 중 사서직이 있는 도서관은 21개관(53.8%)이며, 1관당 평균 1.3명에 불과

■ 추진과제

□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서인력 확대 추진

○ 도서관 직원의 직무분석 및 사서 인력의 수급현황 조사를 통한 사서인력 배치 확대를 위한 근거 확보

- ① 사서의 직무분석
- ② 도서관 인력의 직무현황 조사
- ③ 사서의 수급현황 조사
- 도서관법 하위법령의 합리적 개정 및 이를 통한 사서배치 기준 준수
 - ※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사서수: 4.3명('17년) → 6.0명('23년)
 - ※ 공공도서관 국민 1.000명당 평균 사서수: 0.086명('17년) → 0.12명('23년)
 - 도서관장 사서직 배치 확대
- 대학도서관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대학도서관 인력 직무분석으로 인력 증원에 대한 요인 발굴
 -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 검토: 대학도서관계 현장 의견 수렴, 현행 대학 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문제 조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현실적 개정 검토
-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반영,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배치 확대
 - ※ '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으로 사서교사 및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두도록 함
- □ 전문도서관 인력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 전문도서관 인력배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인력배치에 대한 대책 마련
- □ 특수환경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인력 확대
 - (병영도서관) 전문사서제 도입
 - 향후, 사(여)단급 부대까지 병영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검토
 - 전문사서가 사(여)단 예하 대대급 병영도서관 운영 지도
 - (교도소도서관) 전문사서 배치 검토
 - 도서관법 개정(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을 통해 전문사서 배치 검토
 -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인력배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인력배치에 대한 대책 마련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배치기준 준수 및 전담인력 배치 방안 마련

4-1-2. 사서의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서역량 및 조직의 혁신 필요
 - 기존의 정보활용교육과 데이터가 결합된 '정보리터러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
 - 디지털 및 기술활용교육 등 사서재교육과 큐레이션기반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서역량 변화가 요구됨
- 이용자 욕구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의 역할 변화 필요
 - 전통적 자료관리의 역할을 극복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기획능력 배양 필요

- 사서 직무분석을 통한 미래역량 확인
 - 사서 직무분석 기반 미래역량 확인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사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정보변화와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적, 방법론적 혁신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 디지털 및 기술 활용 교육 강화
- 교육시스템에 대한 혁신
 - 대학 및 사서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혁신
- 관종별 도서관 조직진단 및 조직혁신 방향 설정
 - -도서관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한 조직의 혁신

4-1-3.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도서관인력기준의 법적구속력 약화
 - ※ '16년 전국 공립공공도서관 사서 충원률 18.2%
 - ※ 989개관의 사서 수는 4,238명/사서배치기준에 따른 필요 법정인원 23,222명으로 18,984명 부족
- 도서관 평가 현실적 개정 추진 필요
- 대학도서관 평가의 대학기관인증평가와 연계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평가의 실효성 강화 필요
 -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4.1.3 도서관' 문항을 통해 자료구입비, 직원수, 환경(열람석, 시스템), 교수 학습지원프로그램 등 도서관 관련 일부 분야만 평가하여 전반적 도서관 발전 미흡

□ 도서관인력기준 법적구속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에 도서관정책 담당 부서 설치 및 사서 배치
 -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 설치 및 정책 담당 사서 배치
- 인력배치를 반영한 도서관 정책지수 개발과 운영평가와의 연동 추진
 - 운영주체(지방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에 대한 인력을 포함하는 도서관 정책지수를 개발 및 공표
 - 도서관정책지수(Library Policy Index: LPI): 도서관 투입예산, 법정사서배치율, 도서관장 사서배치율 등
 - 도서관 운영평가에 사서배치 부분 배점 확대 및 운영주체(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평가를 적극반영
 -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사서법정배치율 반영
 - 각종 공모사업 및 수상기관 결정에 도서관 정책지수 반영

□ 대학도서관 평가 선순환 구조 마련

- 대학진흥종합계획, 대학도서관 발전계획과 연계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실적 점검 및 환류를 통해 선순환 구조 마련
 -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한 교육부장관 표창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사례 적극 홍보
- □ 디지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 합리적 조정
- □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 및 중장기 정책 평가체계 마련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방향에 따라 운영평가 지표 개선 추진
- □ 도서관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강화
 - 도서관운영평가 정책환류체계 구축

정책과제 4-2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4-2-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 현황 및 필요성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 제13조에 의거하여,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심의·조정하는 역할 담당
- 도서관의 존립과 기본 목적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도서관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도서관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 (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개정 2009. 3. 25.>
 -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 ·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 3. 25.>
- ④ 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중앙집중적인 도서관정책과 관종별로 분산되어 추진해온 도서관 서비스를 시·도 지역단위로 조정·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역할 증대 및 중앙과의 협력 강화가 요구됨

-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항 사항
-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항 사항
- 지역 내에서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역할강화가 필요
 -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등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필요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 도서관법 제12조 개정 검토를 통한 도서관 정책 기능 강화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심의·조정·관리·의결까지 역할 확대

□ 미래를 위한 도서관 선언

-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개방성, 정보의 민주성을 기본으로 한 도서관 선언문 작성
 - 도서관은 개인의 발전과 사회 성장, 모든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 등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위한 필수적인 기관임을 강조
 - 모든 분야에서 평등성, 다양성, 포용성을 가져야 하고 모든 이용자가 지식정보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자유 보장 강조

<도서관헌장(1967)>

- ①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 ② 도서관은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케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한다.
- ③ 도서관은 생활인의 터전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 ④ 도서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자주자활 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한다.
- ⑤ 도서관은 국제문화의 교량으로써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증진에 이바지한다.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 협력체계 강화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지역대표도서관-기초자치단체 도서관간 협의체 운영 권고
 - 매년 4회 회의를 통한 정책 협의(협의회 횟수 변경 가능)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중앙)-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지역) 협의체 구축
 - 매년 1회 회의를 통한 정책 협의(협의회 횟수 변경 가능)

4-2-2.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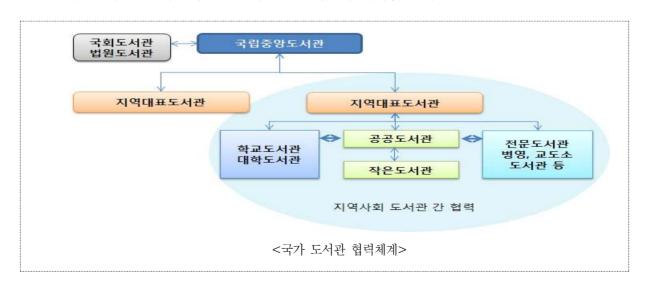
■ 현황 및 필요성

- 경계 없는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개별 도서관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는 이용자인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음
 - 도서관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도서관간 협력을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 필요
- (지역대표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지역 내 도서관 컨설팅 및 연구·지원·교육기능 수행을 위해 국립 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도서관 생태계 구성원 간) 도서관 생태계 활력을 위해 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도서관 생태계를 구성하는 도서관계-출판계-독서계 사이의 소통창구가 없어 상호간의 이해 및 협력 저조
- (도서관운영부처) 교육부(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국방부(병영도서관), 법무부(교도소도서관), 과기부(전문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부처에 도서관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확보 필요
- (남북한 협력) 미래 남북한 도서관 통합을 위한 대응전략 및 교류·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과제

□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을 연결하는 국가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자료 납본, 보존, 디지털화 등 협력체계 마련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계 리더십 강화



□ 지역대표도서관 중심 지역 내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 내 모든 관종 협력체계 구축(공공, 대학, 학교, 전문)
 - 지역 공공, 학교, 대학, 병영, 교도소, 장애인도서관 등 지역 내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계 구축 추진

□ 도서관계-출판계-독서계 협력 체계 구축

- 납본 수집 활성화를 위한 출판·유통계와의 협력체계 구축
- 도서관을 중심으로 출판, 독서계의 소통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 지역서점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 기반의 대국민 공유저작물 이용환경 개선

□ 도서관 운영부처 내 도서관 전담인력 등 확보 추진

- 교육부 내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 설치)에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배치 근거 반영
- 교육부 내 대학도서관자문위원회 설치
 - 대학도서관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 신설
- 과기부, 국방부, 법무부 등 도서관 운영부처 내 전담인력 확보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방안 마련

- 도서관 남북교류 협력체계 구축
 - 남북 도서관계의 상시적 소통채널 확보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남북한 도서관 기본용어 조사·연구
- 공공, 민간 도서관계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 학술분야부터 국가서지의 단계적 공동작성
 - 디지털자료의 교류 확대
- 북한 특수자료의 점진적 개방
 - 특수자료의 분류·판단 기준으로서 특수자료취급지침 개선
 - 관련기관(통일부, 문체부, 국정원 등)과의 협력방안 강구
 - 특수자료취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4-2-3. 도서관 국제교류의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지적자유의 수호기관으로서 국제 도서관계는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정보와 도서관서비스의 평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국제 도서관계가 직면한 도전들, 그 도전들을 극복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의 미래방향 모색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등 국제도서관 단체에의 가입과 활동, 주요 국립도서관과 도서관대표단 상호교류, 국제자료 교환, 국제기구자료 수집, 한국학자료 지원 등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각국 도서관과 상호발전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16개국 18개관)
 - IFLA 아시아·오세아니아 분과 등 총 7개분과 상임위원 활동
 - IFLA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분과 mid-term 회의 개최(2018년)
-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 할 때, 국제회의 참가뿐 아니라 국제도서관계의 리더로 도약함과 동시에 한국 도서관계의 고민과 경험을 나룰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함

■ 추진과제

□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활동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 더블린 코어(DC) 국제회의 개최 지원(2019년)
- IFLA 상임위원회 활동 및 국제기구 학술발표 활성화
 - WLIC, 북미아시아학회(AAS), 유럽한국학회(AKSE), 세계고지도협회(IMCoS) 등

□ 해외 한국자료실 내실화

- 해외 한국자료실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 ※ '17년까지 총 27개관 설치, 9.4만여 책 자료 지원
- 해외 한국자료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기관별 사업현황 조사 공유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

□ 도서관 간 국제교류·협력 확대

○ 국립도서관 간 교류·협력 확대

- 해외 주요 도서관 간 양해각서 체결 확대(2018년 16개국 18개관 → 2023년 18개국 20개관)
- 국립도서관 간 업무교류를 통한 경험 공유 및 협력 기반 마련(2018년 5개국 5개관→2023년 8개국 8개관)
- 도서관 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 공공도서관 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정책과제 4-3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4-3-1. 오픈액세스(open access) 체계구축 및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학자들의 다수 논문이 외국학술지에 투고되는 상황에서 논문투고와 이용에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오픈액세스 추진 모델의 개발 등 국가차원의 OA정책 개발 필요성 부각되고 있음
 - 2009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OAK(오픈액세스코리아) 리포지터리 사업 추진 중
 - ※ '16년 5개, '17년 3개, '18년 3개 등 총 47개 기관에 OAK 리포지터리 보급
- 대학연구기관의 성과관리 및 연구경쟁력과 직결되는 학술자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개발로 국가지식자원 유통체계 개선
 - 한국형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 보급 및 IDR(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모델 개발 추진
 - 국내 연구 성과물의 오픈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 () 핵심 학술DB의 대학라이선스 도입 확대
 - ※ 대학라이선스 도입 자료: ('18) 28종 → ('23) 35종
 - 간접비에서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구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요조사이용현황 분석객관적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자료의 도입 제고 및 홍보를 통한 이용 증대
 ※ 국내 연구자가 인용한 대학라이선스 자료 비율: ('18) 13.4% → ('23) 30%
- 학술 DB의 대국민 점진적 개방 검토

- 정부 R&D예산에서 지원하는 해외 학술DB를 국가 라이선스화하여 유관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에게 개방

4-3-2.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 현황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기반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 확대 필요
- 디지털자원 공유·협력 강화 필요
 - 디지털화 자료의 공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공유·융합·연계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웹 아카이빙 및 디지털자원 보존체계 구축
 - 웹 아카이브 구축 확대
 - 디지털자원의 영구 보존을 위한 '비공개 아카이브' 구축 확대
 - 출판 전자도서 원본 외 전자저널, 온라인자료 등 비공개 수집·보존 확대
 - 디지털자원의 장기 보존 정책 수립
- 디지털화자료 이용협약 도서관 확대 및 지원 강화
 - 국내외 협약도서관 확대
 -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도서관 보상금 지속 지원
- 디지털장서 활용 저해요소 개선
 - 고아저작물의 인터넷서비스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및 시행령상의 제도 개선 검토
 - 도서관의 공공성 및 저작권보호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전향적 논의 필요
- 디지털자료의 검색성능 및 접근성 향상
 - 전문(full-text) 검색을 위한 디지털이미지의 데이터화 및 품질 관리 제고
 - 기관별 뷰어 프로그램 설치 문제 해결

정책과제 4-4

도서관 인프라 확대

4-4-1.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국제적 수준의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이 요구됨
 - 현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신규 건립을 통한 도서관이 확충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하면 공공도서관 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요구됨

<국가별 1관당 인구 수>

(단위: 명)

구분(연도)	한국(2017)	미국(2016)	영국(2014)	독일(2017)	일본(2017)
1관당 인구 수	49,692	34,301	15,465	11,151	38,902

- 지역 교육문화 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및 정보 양극화 해소 필요
 - 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과 연계를 통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확대
 - ※ (규모) '18년 54개소/70,159백만원 → '19년 107개소/81,900백만원
 (지원대상 / 비율) 지방자치단체 / 40% 정률지원
- 창의학습 지원을 위한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공간 혁신 리모델링, 편안한 독서환경 제공을 위한 병영, 교도소, 장애인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지원 필요

■ 추진과제

□ 공공도서관 지속 확대

○ 공공도서관 확대 <'23년까지 1,468개관 목표(1년에 약 71개관)>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42	1,100	1,186	1,258	1,330	1,400	1,468
 1관당 인구 수(명)	49,692	47,114	45,225	43,145	41,160	39,267	37,461

※ (작은도서관) 정부의 생활 SOC사업과 연계 '23년까지 6,956개관 목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작은도서관 수(관)	6,058	6,301	6,427	6,556	6,687	6,820	6,956
전년대비 증감률(%)	_	2.4	4.0	2.0	2.0	2.0	2.0

-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19년 50개→ '23년 230개)
 - ※ 25년 이상의 노후 공공도서관: '17년 230개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시설 확충 및 공간 혁신 리모델링 지원
- 편안한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병영, 교도소, 장애인도서관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지원

□ 도서관 장서 확충

- 이용자 중심의 장서 확충 지속(국민 1인당 장서 수, '17년 2.03권→ '23년 2.5권)
 - 공간의 효율적 활용.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장서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 장서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장서 확충 지속

□ 도서관 공간 혁신 지원

- 도서관건립위원회 구성 운영
 - 신규 건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도서관건립위원회 구성 제도화
- 도서관 건립 사전 평가제 정착
 - 「도서관법」등 관련 법률에 근거 마련
- 도서관 건립과 리모델링 시 반영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
 - 시민의 이용형태나 방식, 인구 구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 구성 등

4-4-2.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 현황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
 -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하여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
-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최신 기술 활용하여 미래형 스마트도서관 구현 필요
 - 이용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챗봇, 스마트그리드, 로봇, IoT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등의 도입 필요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축적된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발 필요
 - ※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17년 기준 660개관 참여, 회원 1,800만명, 대출이력 8.5억 건

□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지향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
- 이용자에 대한 선제적 도서관 서비스 개발·보급

□ 모바일 디지털 서비스 강화

- 모바일 콘텐츠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및 콘텐츠 개발
- 모바일 기기 특성을 적용한 통합 플랫폼 구축
 - 웹 기반 멀티플랫폼, 멀티 디바이스 지원, 반응형 웹기술 구현 등

□ 인공지능(L-AI)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도서관 서비스 환경 구축

- 도서관 인공지능(L-AI) 서비스 개발
 - 도서관 데이터 활용 지식베이스 구축
 - 챗봇 등 채팅 플랫폼 활용 서비스 개발
- 사물인터넷 기반 도서관 서비스 환경 구축
 - 도서관 내 사물인터넷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반 구축
 - 이용자 활동 및 환경 데이터 수집·관리

과제별 협력기관

추 진 과 제	소관 및 협력 부처			
분야 1. 개인의 가능성 발견				
1-1.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1-1-1.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1-2.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2.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1-2-1.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2-2.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1-3-1.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2.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3.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4.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5.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교육부, 교육청			
1-3-6.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교육부			
1-3-7.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문체부, 과기부, 환경부, 복지부 등 각 부처			
1-3-8.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문체부, 국회, 법무부			
분야 2. 공동체 역량 축적				
2-1.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2-1-1.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2-1-2.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 체계 구축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2-2.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2-2-1.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2-3.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2-3-1.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2-3-2.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교육부, 교육청			
2-3-3.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교육부			
분야 3. 사회적 포용 실천				
3-1.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추 진 과 제	소관 및 협력 부처
3-1-1.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문체부, 통계청
3-1-2.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문체부, 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3-1-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3-2. 공간의 개방성 확대	
3-2-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문체부, 행안부, 지자체 및 교육청
3-2-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3-3. 경계를 넘는 서비스 연계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노동부, 지자체 및 교육청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문체부, 외교부, 여가부, 지자체 및 교육청
분야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4-1.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4-1-1. 도서관 사서인력 지속적 확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지자체 및 교육청
4-1-2. 사서의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4-1-3.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4-2.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4-2-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4-2-2.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등
4-2-3. 도서관 국제교류의 강화	문체부, 외교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4-3.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4-3-1. 오픈액세스(open access) 체계구축 및 확대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
4-3-2.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4-4. 도서관 인프라 확대	
4-4-1.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문체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등 각 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
4-4-2.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문체부, 국회, 법무부, 과기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신 분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성 명	직 위	현 직	소위원회
신기남	위원장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고영만	위원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남북교류 소위원장
 김상헌	위원	네이버(주) 경영고문	4차산업혁명적용 소위원장
 김수연	위원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장
박영숙	위원	느티나무도서관장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
 박완순	위원	박완순 인성교육계발원 이사장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
박재섭	위원	인제대학교 인문문화융합학부 교수	남북교류 소위
서혜란	위원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 법・제도 소위원장
우찬제	위원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도서관 법ㆍ제도 소위
이상복	위원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도서관정책기획 소위원장
이수상	위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4차산업혁명적용 소위
이순녀	위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남북교류 소위
이정미	위원	인덕대 도시환경디자인과 교수	도서관정책기획 소위
이종창	위원	파주 가람도서관장	도서관 법ㆍ제도 소위
이지선	위원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도서관 법ㆍ제도 소위
이지연	위원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정책기획 소위
이현주	위원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도서관정책기획 소위
정윤희	위원	출판저널 대표	4차산업혁명적용 소위
한혜영	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4차산업혁명적용 소위

□ 포럼위원

분 과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위원장	이상복*	대진대학교	교수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 위원
	곽철완	강남대학교	교수	
	곽승진	충남대학교	교수	
도서관거버넌스	하부용	도서관정책기획단	단장	중앙부처
	이은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개포도서관	관장	공공도서관
	조혜린	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국립도서관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도서관협회
	장덕현	부산대학교	교수	
도서관서비스	박근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총장	대학도서관
	오정훈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기술원	전문도서관
	이덕주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김홍렬	전주대학교	교수	
	권나현	명지대학교	교수	
도서관인력	심효정	한국도서관협회	본부장	도서관협회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사업부장	공공도서관
정보격차	노영희	건국대학교	교수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조용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장보성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관	장애인도서관

※ 간사 : 도서관정책획단 김수정 사무관, 한혜선 주무관 연구책임자 : 장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문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정기원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작은도서관	박소희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변현주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사무국장	
_	이철재	호서대학교	교수	
공간 	이정미	인덕대학교	교수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 위원
 출판	곽미순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물건 	정선인	대한출판문화협회	과장	
 남북교류	송승섭	명지대학교	교수	
15 不 业	곽동철	청주대학교	교수	
대학도서관	오세훈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단장	
	윤명희	경기도사서협의회 파주중앙도서관	회장 관장	공공도서관
	오지은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광진정보도서관	공동대표 관장	공공도서관
	나병준	충남대표도서관	관장	공공도서관
도서관인력	조수금	도서관협회 부울경지구협의회 부산광역시립 구덕도서관	간사 사서	공공도서관
	이승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학교도서관
	이수아	한국학교사서협회	사무처장	학교도서관
	박근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총장	대학도서관 (포럼위원)